

# 濟州道 初等教育의 活性化 方案

-道德性 높은 教育을 中心으로-

梁 正 實\*

## 目 次

I. 序 論	Ⅲ. 初等教育의 現實과 問題點 및 改善 方案
Ⅱ. 濟州教育의 發展過程과 體驗的 論述	1. 教育의 制度的 改善方向
1. 濟州教育의 歷史的 概念과 發展 過程	2. 家庭教育의 實態와 問題點 및 改善 方案
2. 本道 住民意識의 實態와 進路教育	3. 社會文化的 問題點 및 改善 方案
3. 濟州教育의 나아갈 方向	4. 敎員의 品格과 資質向上 方案
4. 筆者의 體驗的 論述	Ⅳ. 結 論

## I. 序 論

教育은 國家百年之大計라하여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世界의 모든 나라들이 教育을 所重히 여겨 왔고 더욱이 科學文明이 發達할 수록 教育競爭이 심해져 가는 것은, 教育은 바로 國家興亡을 가름 하기 때문이며, 教育의 發展없이 國家가 發展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自明한 일이기애 教育의 對象은 그나라 國民 모두임으로 國民 個個人에게 教育이 고루 잘 이루어 질 때 家庭이 繁榮하고 따라서 社會가 發展하면서 國家가 부흥해지는 그 原動力은 教育의 힘인 것이다.

이처럼 重要한 教育은 亦是 教育이 基礎가 되는 初等教育이 더욱 重要함을 느껴 濟州道 初等教育의 活性化를 위해 濟州教育의 發展過程으로서 濟州教育의 歷史와 住民意識을 알아보고 入試爲主와 點數重視教育을 改善토록 하며 人性教育의 重要함을 強調하고 道德性 높은 教育을 促進하면서 우리 濟州道 初等教育의 發展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視角에서 濟州道 初等教育의 活性化 方案이란 論題로 필자가 걸어온 40余年間의 教育의 자취를 되새겨 보면서 論述해 보기로 한다.

\* 高級管理者課程 第4期 修了生

## Ⅱ. 濟州教育의 發展課程과 體驗的 論述

### 1. 濟州教育의 歷史的 概觀과 發展課程

歷史란 人類가 태어나서 生存 해 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口傳과 記錄으로 傳해 내려오면서 歷史를 통해서 過去를 알고 오늘을 照明하며 未來를 創造하는 것이 歷史일진데, 이처럼 人類生活의 發展史는 바로 教育이 歷史라고도 할 수 있고 教育의 歷史는 過去 既成世代가 成長世代를 가르치고 기르기 위해 계획하고 생각하고 實踐한 모든 個人的이고 社會的인 活動들의 現像을 一定한 歷史意識을 통하여 把握한 內容이라 할 수 있다.

教育은 人間의 삶의 原現像인 것이며 따라서 人類文化의 成長과 發展이 모두 教育의 歷史일진데 教育은 넓은 意味에서 教育的 觀點에 의하여 批判된 文化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制度的인 學校教育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高句麗 小獸林王 2年 6월에 太學을 세우고 子弟를 教育하다”라는 것으로 보아 公式的으로 官學을 세운것은 西紀 372年에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sup>1)</sup>

이제 濟州教育의 歷史를 考察해 보면 濟州道의 教育은 탐라가 高麗朝에 服屬한 10世紀 이래 支配層의 子弟들이 10代 靖宗 때 부터 科擧에 及弟 任官의 길이 열려 顯官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 큰 영향을 받아 士官子弟들에게 큰 刺戟을 주었으며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教育을 中心으로 하는 科擧가 詩文 等 創作이나 經書의 暗誦理解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教育自體도 詩文學과 經書의 暗誦 教育에 置重되었고 高麗가 朝鮮朝로 交替됨에 따라 많은 忠臣들과 선비들이 本島에 들어오므로 興學이 크게 發展하였으며 그 入島한 代表的 人物로는 陽遷 許氏의 許遜과 金海金氏의 金萬希氏 淸州韓氏의 韓歲 등이 기록에 남아 있다.<sup>2)</sup>

當時의 教育의 主體는 鄉校였으며 鄉校는 朝鮮朝地方教育의 代表的 기관으로 儒敎理念을 普及하기 위하여 一邑 一校의 原則에 따라 모든 郡縣에 存在한 唯一한 官學이고, 우리 濟州道에는 濟州鄉校와 더불어 旌義, 大靜에 3個의 鄉校가 設立되어 敎學을 하였고 職制로는 濟州牧은 敎授(從六品) 一人 訓導(從九品) 一人 擊義二人 有司四人이 있었고 兩縣에는 訓導各一人 擊議 二人 有四는 二人에서 四人이 있어 敎學을 하였다고 하며 각 마을에는 漢文書堂을 세워 漢文을 가르친 것이 우리 濟州道教育의 始初라고 할 수 있다. 書堂內容을 보면 書堂은 一般民子弟들의 教育을 위하여 本島의 文化및 振興에 이바지 한 바 至大할 뿐만 아니라 마을을 單位로 그 教育的 影響은 全島의으로 高루퍼졌으며 書堂은 特히 朝鮮朝中期부터 全國的으로 普及되기 始作하여 小規模의 私設教育機關으로는 基本財産이나 認許可를 必要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뜻이 있는 사람이

1) 玄化珍 “編纂辭” 「濟州教育沿革誌」, 1987. 5

2) 濟州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1979. 12. 10, 1面 參照

면 자유로이 書堂을 經營할 수 있어 各村落마다 많은 書堂이 施設되었으며,<sup>3)</sup>

近代 學校教育은 西紀 1906年 濟州高等 尋常小學校 設立과 1907年 公立 濟州普通學校 및 濟州 農業高等學校의 前身인 私立 義信學校가 開校한 것이 그 始初라 할 수 있다.

解放後에는 部落마다 國民學校가 設立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濟州大學校를 비롯한 濟州教育大學 과 3個의 專門學校 그리고 67個의 中高等學校가 設立되어 우리 濟州道の 教育은 量과 質로 全國 水準을 넘보고 있다.

## 2. 本道の 住民意識의 實態와 進路教育

우리 濟州道는 絕海孤島이지만 사람이 살기 始作하면서 부터 教育은 있게 마련이므로 高麗朝이 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邑道한 各성씨의 先祖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고 조정으로부터 反역으로 몰려 유배해 온 政臣인과 學者들이 많았으므로 선천적이 學구심도 유전되어 우리 濟州道の 높은 教育열을 남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舊韓國時節에도 學堂數가 많았지만 解放과 同時에 國民學校의 設立은 各 마을 有志들이 앞을 다투어 이루었으니 學校없는 마을이 없을 程度이고 보면 教育熱은 全國에서 단연

上位圈은 教育統計의 數值로도 證明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 우리 先人들의 教育은 道德性을 強調한 教育에서 詩文創作과 經書教育에 置重하여 科擧及弟를 目標했던 習性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本道の 住民大部分의 意識構造가 自己의 子女들에게 公職者만을 選好케하는 思想이 오늘까지 強하게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現實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사람이 이 世上에 태어날 때는 그누구도 한가지의 才操를 갖고 나온다고 하며 왼손잡이가 오른손이 잘 안뜬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라 文學方面에 타고난 사람이 있고 理工學이나 數理方面에 뛰어난 사람 또는 藝能이나 體育機能에 뛰어난 사람등 사람마다 제각기 타고난 才能과 才操를 갖고 나온 것인데 學父母로 하여금 子女의 趣味나 素質과는 관계없이 大學을 보내는 것도 公職만을 選好하여 子女의 趣味와 素質에 맞지 않은 工夫를 억지로 시키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에 人性에 따른 進路教育이 初等教育때부터 切實하다는 생각에서 人性과 進路教育에 대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人性이란 사람의 性品을 말하며 또한 性品이란 사람의 性質과 品格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人性은 論理적인 道德性과 不可分한 것이므로 사람으로써 人性이 모자라면 곧 사람으로써의 價値를 喪失케 된느 것인즉 道德性 높은 教育의 必要性은 再言을 不要로 하는 것이다.<sup>5)</sup>

3) 康禎殷 「濟州教育行政發展史」, 「耕信印刷社」, 1991. 12. 30」 76~77面 參照

4)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1979. 12. 10. 18面

5) 道德性 높은 教育으로 人性教育을 바로잡아야 함.

#### ④ 濟州道 初等教育의 活性化 方案

濟州道 島民들이 先人들로부터 精神的 遺産으로 물려 받은 것 중에서 가장 所重한 것이 倫理 道德觀이었는데 이처럼 所重한 倫理와 道德觀은 歲月이 흐를수록 쇠석되어 가는 일로 國家的으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우리 濟州道 역시 예외는 아닌 일로써 憂慮하고 있는 此際에 全道民이 뜻을 모아 道德性 높은 教育을 強化하여 人性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國民學校때부터 人性教育과 進路教育의 必要性을 強調하면서 筆者가 新禮國民學校 校長으로 在任時 4, 5, 6學年을 對象으로 進路教育을 直接해 본 그 事例를 濟州道教育研究院에서 발행한 進路教育 第8號에 寄稿한 內容을 既述해 보면 ★ 進路教育의 方向 ★ 進路教育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 進路教育의 實際와 ★ 나의 提言으로 되어 있는데, 進路 教育의 方向은 略하고, 進路教育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進路教育의 實際와 提言을 既述하면 다음과 같다.

##### 1) 進路教育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1) 教育은 學校單位로 教師와 兒童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兒童의 進路教育 역시 教師의 力量圈에 속함으로 國民學校에서는 進路教育이란 차원에서,

첫째로 : 學校長 自身이 進路教育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울러 進路教育 方案을 연구하여 校內 研修會를 통하여 擔任教師로 하여금 進路教育에 대한 이해와 必要性을 알고 進路교육의 方法을 研究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주고

둘째로 : 擔任教師로 하여금 兒童 개개인이 進路指導를 위해 科學的인 資料로, 어린이의 장래 희망과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개인별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2) 家庭에서 學父母의 협조를 얻기 위해 兒童 개개인에게 조사된 人性검사자료를 토대로 學父母와 進路指導를 위한 상담을 실시해야하며, 그 상담의 내용으로는,

첫째 : 進路指導란 무엇인가를 이해시켜야 한다. 進路指導란 단순히 子女들에 대한 進學이나 취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써 平生 살아갈 方向을 잡아주는 것을 인식시키고,

둘째 : 자기자녀에 대한 進路指導의 必要性을 알고 現在社會의 問題點으로써 經濟技術의 發達과 人力수급의 상과도를 이해시키며, 技術人의 必要性을 알게하고 靑少年들의 潛在能力과 일의 種類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며,

셋째로 : 學校만 卒業하면 就業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게 하고 在學中 확고한 信念을 갖고 目標를 정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한다.

넷째로 : 職業倫理와 일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等을 學父母에게 인식 시켜주어야 하고, 進路指導는 人間이 태어나서, 유아기에서 老人이 될때 까지 平生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임으로 進路指導 또한 平生을 통해 계속되는 삶의 과정인 만큼 어릴때부터 指導할 必要性을 심화시키고 무한한 可能性을 지닌 子女들에게 올바른 삶의 方向으로 人生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家庭에서 指導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6)</sup>

6) 梁正實 事例發表 「濟州道教育研究院」, 「進路教育 第8호, 1992. 6」, 7~14面.

2) 進路教育의 實際

오늘날 우리 國民學校의 教育에서 진로教育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絕對的인 것이며 都市의 學校보다는 農漁村 學校가 더 중요하고 學父母의 教育水準이 낮을 수록 進路教育은 더 充實해야 할 것으로 볼 때 中산간의 農村에 위치한 우리 學校로써는 진로教育의 더욱 중요함을 알고 進路教育의 자료를 얻기 위해 1990년 3월 「한국 행동과학 개발원 부설 성격 적성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로 장래의 희망조사를 4, 5, 6학년 84명을 대상으로 兒童과 學父母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바 아래 「표 1, 2」와 같다.<sup>7)</sup>

표 1. 아동희망 조사 집계표

성별	장래의 희망								
	과학자	군인	경찰	공학도	의사	목수	농업	우주비행사	운동선수
	8	1	2	2	4	1	1	3	5
					4				2

성별	장래의 희망								
	교원	판사	간호사	예술가	코미디언	공무원	검사	계	
	4	1				2		34	
	28	2	5	6	2	2	1	50	

표 2. 학부모의 바라는 희망 조사 집계표

성별	바라는 희망						
	군인	공학도	의사	교원	간호사	예술가	장관
남	3	5	5	12		1	
여		2	6	13	7	4	1

성별	바라는 희망					
	의교관	농업	약사	박사	공무원	계
남	2	2		1	3	34
여	3		9	2	3	50

위 「표 1, 2」와 같이 아동의 장래 희망과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희망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좋은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sup>8)</sup>

7) 農漁村學校의 進路教育 強調

8) 韓國行動 科學開發院 附設 性格適性 研究所. (1980. 3)

## ⑥ 濟州道 初等教育의 活性化 方案

### (1) 兒童들의 장래 희망 조사

아동들에게 장래희망 조사 설문지를 나누어 주기에 앞서 오늘의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 시키고 장래 희망과 그 희망하는 사유까지 적도록 해 본 결과 「표 1」과 같이 열여섯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남여 84명중 교원을 희망하는 어린이가 32명으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농업 희망은 단 1명 뿐이며 그밖에는 2,3명 내외로 나타났다.

### (2) 學父母들이 바라는 희망

「표2」와 같이 열두가지로 나왔는데, 84명중 교원이 25명으로 으뜸이고 의사, 약사, 공학도, 간호사 순으로 나와 있고 농업은 단 2명으로 역시 교원이나 공직자를 선호하고 농업이나 노동은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兒童과 學父母님들의 희망 사유

아동들은 어떠한 직업의식을 갖기 보다는 나는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했고, 반면에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像으로써 직업을 의식하여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바라는 사유로 나타나 있다.

### (4) 兒童과 學父母들의 희망에 대한 筆者의 견해

본교가 위치한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는 설촌 6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예절바르고 한학 선비가 많이 배출된 전통있는 마을로써 직업 선택으로는 공직을 숭상하는 경향이 짙어 현재도 본학구내에는 교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수가 60여명이 되는데 아동이나 학부모들도 역시 희망조사에서 공직을 선호한 결과가 뚜렷했으며 기술직이나 노동을 외면하는 경향을 개선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본다.

### (5) 앞으로 國民學校에서의 進路指導

일과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학습 경험을 통하여 제공해 주고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영역에 대한 판단과 일에 대한 기초적 기능과 좋은 습관을 어려서 부터 익히게 하고 일의 所重함을 알게하는 것은 國民學校 進路指導의 核心的 活動이라 할 수 있다. 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어릴때부터 일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은 克己心 배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며 農村의 어린이로써는 家庭 일에도 적극 참여 시키는 것이 어릴때부터 일하는 習慣이 形成되며 끈기력 배양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어린이들이 家庭일 돕기에 積極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sup>9)</sup>

9) 韓國教育 開發院, 「進路教育體制 研究」, 1987, 170~171面

### 3. 濟州教育의 나아갈 方向

教育의 窮極의인 目的은 그나라 國民個人이 人格을 完成하고 健康을 增進시켜 有能한 生活人을 養成하는 데 있다고 보면 人格完成을 위해서 바르게 熱心히 배우면서 強健한 體力으로 有能한 生活人이 되어야 함은 勿論인 것이다.

이 有能한 生活人의 境界는 各己能力에 따라 家庭生活에서 有能人 職場生活에서의 有能人 地域社會와 國家生活에서의 有能人 더 나아가서는 國際生活에서의 有能人도 오직 教育을 통해서만이 可能할 뿐인 것이다.

이처럼 有能한 生活人을 기르기 위해서 教育制度上으로 修學能力을 評價하는 教育制度로써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동안 그리고 現在까지도 入試制度의 모순으로 여러가지 弊害를 유발하고 있다.

해마다 좁아만 가는 大學의 門을 뚫기 위해 各種非理도 不辭하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면 正常의인 學校의 教育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學院의 課外가 奇功을 부리고 있고 一部の 부유층들은 金力으로 家庭教師까지 招待하여 教育을 시켜가니 社會的으로 階層間의 分化는 날로 심해지고 치열한 入試의 競爭으로 같은 班 學友間에는 “競爭은 있어도 友情은 없다” 라고 갈파하는 것은 亦是 入學은 相對的이기 때문에 다른 學友보다 자기가 成績이 올라야 大學入學이 可能함으로 友情도 失蹤해 가고 있고 近間에는 國民學校의 兒童에게까지 國語, 算數, 社會, 自然의 4個 科目 課外 허용이란 報道가 어처구니 없게도 나왔다가는 多幸이도 數日後 유보라는 記事가 나오기도 했다.<sup>10)</sup>

이처럼 國家的으로 教育部 當局의 一貫性 없는 政策은 더욱 入試教育을 助長하는 셈이며 올바른 人格形成을 위해서는 道德教育을 重視하고 全人 教育을 잘 해야 하는데 國民學校에서도 國語, 算數, 社會, 自然을 試驗봐서 點數를 잘 따면 學父母들은 그것만 갖고 기뻐하고 子女들의 生活이 빗나가는 것은 아랑곳 없이 여기는 그 教育 自體가 社會的으로 크나큰 弊害의 要因임을 알고 하루속히 國家的으로 公教育의 入試制度를 고쳐야 하며 어데까지나 學校의 正常의인 教育을 重視하고 家庭과 社會的으로도 入試教育과 點數爲主의 觀念을 一掃해 나갈 때 學校教育은 正常化되어가고 學校教育이 正常化될 때 教育은 되살아나, 바로 教育은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되어 우리나라는 繼續하여 놀랍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sup>11)</sup>

### 4. 筆者의 體驗的 論述

歲月의 흐름속에서 이제 헤아려 보니 筆者가 敎職生活을 한지도 於言 41年이나 된다.

10) 韓國教育團體 總聯合會 韓國教育新聞社, 「입시과열 부추기는 신문의 대입 문제지」, (1994. 9월호) 22면 참조 11) 入試制度 改善促求

### ⑧ 濟州道 初等敎育의 活性化 方案

앞으로 退任할때까지 남은 期間內에 지금까지 보다 誠實히 못다한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함으로써 敎職을 마감할 때 後悔를 덜하게 되므로 耳順이 지나면서 부터는 2년에 할 일을 1년으로 앞당기고 이틀에 할 일을 하루에 할 計劃이고 보니 나에겐 1년이 2년 몫이 되고, 하루가 이틀 몫이 되는 셈이며 나의 敎職生活에서 始作과 과정도 重要했지만 마감을 하는 끝맺음을 잘 해보기 위해 平生敎育이란 말을 信奉하여 敎職生活을 마감하고 退任後에도 社會적으로 活動하는데 必要한 營養素를 供給받기위해 나이가 들었지만 자랑스러운 濟州大學 行政大學院에 入學을 하고 보니 바램 以上の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꽤 多幸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날 내가 걸어온 敎職生活을 되새겨 보기로 한다.

우리의 先人들로 부터 傳해오는 말씀 가운데 사람은 어릴때 將來에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成人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 진다고 傳해지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렸을때 무슨 職業을 갖겠다는 強한 意志와 꿈은 자라서 꿈이 現實로 나타난다는 뜻인데 筆者에게도 이 말은 맞아들어서 筆者도 國民學校의 어린 時節부터 自身도 모르게 어쩐지 敎員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다.

그런데 지난 93년 癸酉生이 還甲을 맞는해에 李圭泰코너는 朝鮮日報에 波瀾萬障의 癸酉生이란 題目的 글을 써주었듯이 1933年生들은 大東亞戰爭末葉과 濟州道の 비참한 4.3事件을 겪는가 하면 소름이 끼치는 6.25의 主役이기도 했기에 波瀾萬障以上の 알맞은 낱말은 없을까하고 생각해보며 살기 좋은 時代에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波瀾萬障의 時代에 태어난 태어난 筆者는 어렸을 때부터 지녀온 敎員의 꿈은 6.25을 맞으면서 生의 위협속에서 좌절될 뻔도 했었다.<sup>12)</sup>

1950年 6.25가 터지자 筆者는 中學校 3學年 在學中 17歲의 어린나이에 家庭的으로는 3代獨子の 몸이지만 祖國의 守護를 위해 學徒兵으로 志願入隊出征을 하여 펜을 銃으로 바꾸어 내고 勇戰奮鬪하다가 數十死一生으로 전상을 입고도 살아나 名除隊를 하여 歸家를 한 後 다시 銃을 펜으로 바꾸어 잡고 所定의 師節敎育을 마쳐 1953年 12月 31日 西歸浦市 孝敦國民學校로 첫 發令을 받음으로써 어릴때부터 지닌 敎員의 꿈은 實現된 것이다. 師節敎育을 마칠때 當時 校長先生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여러분들은 敎師로 發令을 받고 任地에 赴任하면 環境에 順應하고 超越하라 그리고 하나의 特技를 갖고 誠實히 勤務하라"는 이말씀을 敎員生活의 左右銘으로 삼고 勤務한 것이 나로서는 그런대러 敎育力을 發揮할 수가 있었다고 보아지며, 이제 41年間 敎育을 해온 그 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sup>13)</sup>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所重하고도 어려운 일이며 萬에 하나라도 남의 집의 귀한 子女들을 소홀히 가르쳤을 경우 刑事的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道德的인 罪責感은 免치 못할 것 이므로 내가 맡은 兒童들을 誠實히 가르친다는 一念에서 平敎師때부터 글짓기 指導에 專念

12) 李圭泰 코너 朝鮮日報의 波瀾萬丈의 酉生 記事

13) 環境에 順應과 超越 - 筆者의 生活左右銘



한 것은 어린이들이 글짓기 能力과 雄辯等 發表力 伸張에 많은 效果를 얻을 수가 있어서 道内外에서 施行하는 글짓기와 雄辯大會의 行事에서 入賞될 때는 보람도 느꼈으며 또한 筆者 自身도 글짓기 指導方法을 계속 研究하면서 1960년과 61년에는 童詩 2편이 朴木月 詩人으로부터 入選作으로 뽑혀 2回推薦을 받기도 했으며 敎職生活의 出發에서 오늘에 까지 40余年間에 걸쳐 敎育論文과 隨筆 紀行文 等 100余回 以上紙上 發表한 原稿은 所重하게 保管하고 있어 敎職退任前 敎育 半世紀라 이름하여 한 券의 책으로 發刊할 計劃이기도 하다.

筆者의 敎職生活에서 勤務年數가 오랏에 따라 管理職이 된 후에도 在任하는 學校마다 글짓기 및 讀書指導는 特別活動으로 펴고 있고 敎育의 與件造成을 위한 施設活動과 그 밖의 活動하 內容을 記術해 보면,

### 1) 校地擴張 事業成就

1967년 校監으로 昇進하면서 赴任한 新禮國民學校는 筆者의 故郷學校이다. 校地가 700余평에 불과하며 4.3事件의 餘波로 매우 零細해진 學校인데 當時 이웃 學校에 秋季 體育會見學을 다녀온 6學年 어린이들이 異口同姓으로 “校監先生님 우리 學校도 이웃 學校처럼 運動場도 넓이고 초가집 敎室도 허물어 큰 敎室을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뼈에 사무치게 듣고 우선 學校發展을 위해서는 校地를 擴張해야 된다는 執念에서 學區民들과 議論을 하여 學校를 擴張할 計劃으로 當時 學區民들이 設村之後 처음으로 市外버스를 놓기 위해 마을안길 擴張作業을 한 代價로 나온 糧穀을 全學區民의 同意를 얻어 賣出한 金額으로 校地 1,713坪을 매입 한것이 學校發展의 기틀이 되었으니 이 校地를 오늘의 地價로 환산하면 8억원이 넘는 敎育資產을 쉽게 確保한 셈이다.<sup>14)</sup>

### 2) 民俗館 施設

1983년 城邑國民學校에 在任時는 現在의 位置로 學校를 移設하면서 學校造景에 애를 먹으면서도 民俗村에 位置한 學校로써 民俗資料를 保存할 使命感으로 學校内に 民俗館을 옛 모습 그대로 짓고 學區内に 散在해 있는 民俗資料 1,100余點을 수집하여 進열한 일은 筆者가 지금 생각해 봐도 보람으로 느끼며 만약 그때의 時期를 놓쳤다면 城邑 마을안에 散在해 있던 民俗資料들은 外人에게 팔려나가고 말았을 것이다.<sup>15)</sup>

### 3) 褒賞금과 잔당한 돈으로 鍵盤樂器 寄贈

筆者는 賞을 받기 위해 敎育에 熱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1985년 12月 31日 爲美國國民學校에 在任時 模範公務員 褒賞과 함께 賞金으로 매달 2만원씩 3年間 받게 되고보니 筆者로써는 褒賞만 받는 것도 너무 과분한데 3年間 賞金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괴로워서 집사람과 議論을 하여 賞金

14) 1967년 故郷學校에서 校地 1,713平 確保 「學校發展의 기틀이 됨」

15) 城邑國民學校에 民俗館 建立, (자료 1,100점 수집)

2만원에 家庭에서 節約한 生活費 3만원을 합쳐 月 5만원씩 3年間 積金한 돈으로 筆者가 사랑하는 子女에게는 올겐 한대도 못사 주면서 故郷學校인 新禮國民學校와 母校인 爲美國民學校에 各 피아노 한臺를 또한 내가 教育平生 가장 心血을 기울였던 城邑國民學校에는 올겐 한臺를 寄贈한 일은 생각 할수록 지금도 感懷가 깊어진다.

#### 4) 全國 아름다운 學校 誕生

1990年 3月 故郷學校인 新禮國民學校의 校長으로 赴任을 한 후에는, 1979年 校監으로 在任當時 새 學校建設을 標榜하여 새 學校를 일으켰으나, 그때 다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 하기위해 學校發展 推進 委員會를 結成하여 筆者 自身부터 學校發展 誠金을 맨먼저 내면서 3,000余만원의 誠金과 教育청의 도움으로 2層 教室로 特別教室 3個 教室을 짓고 運動場 앞 實習地의 果樹園을 整理하여 校門동쪽은 잔디밭을 造成하여 케이트볼장을 만들어 老人들이 運動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쪽은 靑少年들을 위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으니 너무도 環境이 아름다워서 지금부터 15年前만 해도 濟州道에서 제일 零細했던 新禮國民學校가 91年 9月 全國 아름다운 學校로 뽑혔으니 全學區 民과 兒童들은 지난날 것처럼 零細했던 그때의 학교를 생각하면서 感激의 눈물을 참기가 어려울 정도이었다.<sup>16)</sup>

#### 5) 自然保護 最優秀校 受賞

오늘의 教育은 學校 안내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學校教育의 社會로 連繫되어야 하므로 아름다운 學校의 教育力도 마을과 연계시켜 마을 안길 청소와 新禮川의 自然保護活動을 年中計劃에 의하여 繼續 實施한 보람은 1993年 12月 1日 아름다운 濟州가꾸기 심사에서 最優秀賞과 賞金을 道知事로부터 받아 그 賞金으로는 2個 教室을 講堂으로 改造하는데 必要하게 使用했으며, 1994年 9月 1日에는 南濟州郡의 主催한 自然保護 活動과 쓰레기 再活用品 수집 運動에서 亦是 最優秀賞을 받아 그 賞金은 學校의 運動場內 周圍 要素에 人造木 의자를 設置해 놓기도 하였다. 이제 紙面의 制約으로 體驗的 論述을 줄이면서 맺고자 하는 말로써 教育은 透徹한 使名感을 갖고 誠實과 努力만이 教育發展의 열쇠임을 우리 敎職者 모두는 깊이 銘心하고 계속 努力해야 할 것이다.<sup>17)</sup>

### Ⅲ. 初等教育의 現實과 問題點 및 改善方案

사람은 이 世上에 태어나면서 부터 教育은 이루어지기 始作하여 平生동안 生活 그 自體가 教育인 것이며 한 家庭이 繁榮이나 國家의 興亡도 教育의 成敗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질 때 教育力은 大端

16) 「全國 아름다운 學校誕生」, 1991. 9.

17) 自然保護 最優秀校로 2回 受賞은 값진것.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教育의 重要性을 감안해 볼때 教育에서도 初等教育은 基礎教育 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成長과정에서 가장 感受性이 예민한 時期에서의 教育이기 때문에 더욱 重要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 濟州道 初等教育의 實態를 볼 때 마을마다 學校의 分布圖는 全國에서의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農漁村學校의 兒童數격감으로 6學級規模의 學校數가 60%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수 100名 以內的 學校數도 해가 거듭할 수록 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國家에서는 農漁村教育의 實態를 파악하여 그 改善策을 강구해 주어야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學級當 人員數를 先進國처럼 30名이내로 줄이고 教育의 여건을 시급히 改善해 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濟州道初等教育의 活性化를 위하여

- ★. 教育의 制度的인 改善方案과      ★. 家庭教育의 實態와 改善方案
- ★. 社會文化的 問題點 및 改善과      ★. 敎員의 品格과 資質 向上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1. 教育의 制度的 改善方案

우리나라의 教育制度를 볼 때 制度上的 問題보다는 教育運營上的 問題가 더욱 크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教育은 過去에서부터 現在에 까지도 主客이 顛倒가 되어있다.

教育의 主體는 어디까지나 兒童이요, 兒童이 있으므로서 學校가 있고, 學校가 있으므로서 教育廳이 있고 教育部가 있는 것인데 이를 거꾸로 생각을 하여 마치 教育部와 教育廳이 있으므로서 學校와 學級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教育發展을 위해 當然히 教育施設을 해주는 일도 마치 自己네가 善心이라도 쓰는냥 權利行事로 알고 있으며 上級기관은 一線學校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 主任務로 알아서는 絶對로 안될 것이며 一線學校의 校長들도 學校의 主任務는 26坪의 教室안에서 擔任 敎師로 하여금 어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敎授學習을 잘 할 수 있도록 與件을 造成해 주는 일이 學校長으로서의 役割임을 알고 校費支出도 教室안에서 敎授學習을 改善하는데 優先해 주어야 할 것이다.<sup>18)</sup>

우리나라의 教育制度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要約하여 入試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과 教育自治制運營實態 및 改善方案만을 論述코자 한다.

#### 1) 入試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入試制度의 問題點에 對해서는 앞에서 論述했지만 入試制度의 改善은 너무도 重要的 問題이기 때문에 그 具體性을 들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施行하는 入試制度가 낡은 여러가지 병폐가

18) 教育의 主體는 兒童이므로 教育財政의 投資는 教室에 우선함이 바람직 함

데서 큰것만을 골라 보면,

(1) 入試爲主의 教育은 全人教育을 해쳤고, 特技伸張을 위촉 시켰으며,

(2) 人性教育과 適性에 맞는 進路教育을 소홀히 했으므로 道德性이 失蹤되었다.

(3) 課外學習을 부추긴 結果는 놀랍게도 私教育費가 年間 19兆원이 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처럼 헛되게 消耗되는 私教育費의 10분의 1만이라도 教育의 本山인 26坪의 教室안에 投入을 한다면 教育은 놀랍게 發展해 나갈것이다. 오늘날 社會를 혼란시키고 파렴치犯들이 續出하는 原因도 入試의 병폐가 낳은 것이며 家庭과 社會教育이 빛나간 原因도 여기에 있다고 보아진다.

앞으로 入試教育의 改善方案을 들어 보면,

(가) 教育制度上으로 우리 濟州道에서부터 高等學校까지 教育을 適性에 맞는 學校와 學科를 선택하도록 하여 全員入學할 수 있도록 해주고 大學試驗도 現在 施行하고 있는 修能試驗制度를 좀 더 研究補完하여 從前의 豫備考査 처럼 効力を 갖게 하되 그래도 大學의 本考査를 必要로 하는 大學에서는 大學別로 學科에 따라 예를 들면 國文學科인 경우 國文學을 核心으로한 單一出題로 하여 入學生을 選拔한다면 必然的으로 國, 英, 數 爲主의 課外學習은 없어져 가서 國民學校에서부터 全人教育이 活性化가 되어 갈 것이다.

(나) 우리 濟州道에는 地域의 特異性을 考慮하여 全國에서 一律的으로 施行하는 즉 兒童數에 따라 國民學校에서 分敎場으로 格下시키는 일도 우리 濟州道만은 農漁村의 事情을 감안하고 지금 까지 각 마을에 세워진 國民學校는 義務教育이지만 각 마을에서 學區民들이 부담을 하여 設立된 學校임으로 分敎場으로 格下시키거나 심하게는 폐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을 온 道民은 強力히 바라고 있으므로 政府에서도 이를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分明하게 말하고 싶다.

## 2) 教育 自治制 運營方案

우리나라도 文民政府가 세워지면서 地方化時代를 맞게 되어 一般行政은 廣域과 基礎單位인 市郡까지 自治議會가 構成되어 地方自治가 活潑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우리의 教育自治는 오히려 위축이 되어 基礎單位의 教育自治制가 實施되지 않음으로 市郡 教育廳은 道教育廳과 一線學校間의 中間役割에 不適當한 位置이며 一線學校에서의 必要긴급한 施設을 하기위한 豫算이나 教育을 위한 條例하나를 制定 또는 改廢하려해도 道教育委員會를 通過한 後 다시 道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効力이 發生함으로 立案을 해서 執行까지 長期間이 所要되어 쓸데없는 時間낭비는 大端히 不合理한 것이다. 그리고 道教育委員의 選出은 道議員들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道教育委員은 道議會에 從屬된 감을 갖게되기 때문에,<sup>19)</sup>

19) 韓國教育 開發院 「地方教育財政 制度發展方」, (1992. 12) 25面 參照

20) 韓國敎員團體 總聯合會 敎育研究所 「敎育自治制 運營實態 및 改善方案」, (1992 105面 參照)

그의 改善策을 論述해 보면,

앞으로 完全한 教育自治制實施는 教育의 地方化와 教育發展의 基幹이 되므로 教育自治制의 改善策으로써 現行 廣域 道單位에서 市郡으로 擴散하여 基礎單位까지 教育自治制를 實施할 것이며,

(1) 教育委員選出은 現在 地方議會議員 選出方法과 같이 市, 郡, 邑, 面 地域單位로 道 教育委員과 市郡 教育委員을 選出하되 被選舉權은 教育經歷者를 法으로 制限決定 해야 하고,

(2) 教育監 및 教育長 選出에 있어서는 現在까지 教育監 選出은 道議會에서 뽑힌 少數의 道教育委員에 의해서 敎皇式, 選出方法을 택하였고, 教育長은 教育監이 提請에 의하여 教育部 長官이 任命하였으므로 教育長은 소신을 갖고 教育行政을 필수 없으므로 教育長도 民選教育長이 되어야 옳을 것이며, 앞으로 教育監選出은 道教育委員들이, 教育長 選出은 市郡 委員들이 하되 被選舉權은 教育經歷者 중에서 法으로 制限決定해야 하며 教育委員들은 教育監과 教育長을 選出할 때 自由競爭에 의한 候補者들의 教育行政에 대한 비전과 教育哲學과 抱負를 잘 듣고 高度의 道德性은 사람이 뽑힐 때 教育自治制는 活性化 될 것이다.<sup>20)</sup>

## 2. 家庭教育的 實態와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 家庭教育的 實態와 問題點

옛날의 教育은 學父母들로 하여금 子女들을 學校에만 보내면 教育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아 왔는데 오늘에 와서는 社會가 복잡해 지고 文明이 發達함에 따라 學校, 家庭, 社會가 三位一體가 되지 않고서는 教育은 不可能하므로 家庭教育은 더욱 필요로 한다. 그래서 家庭보다 더 좋은 學校가 없고 父母다 더 훌륭한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말인 것이며 子女들의 教育은 어머니 뱃속에서 부터 始作이 되어 家庭에서 父母와 같이 生活을 하는 其自體가 教育이므로 子女들은 父母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父母들이 家庭生活에서 垂範이 되지 않고 父母들 生活이 健全치 못할 경우 곧 子女에게는 바로 오염이 된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家庭에서 父母들은 하루에 책한번 펴보지 않고 子女에게만 工夫하라고 하는 것은 說得力이 없는 것이고 父母들은 밤이 오래도록 TV를 볼륨도 높여 視聽을 하면서 子女들에게는 TV보지 말고 工夫만 하라는 말도 成立이 되지 않는다.<sup>21)</sup>

### 2) 改善方案

(1) 學父母 教室運營의 內實化로 家庭과 學校의 共助體制를 유지한다.

(2) 家庭生活을 통하여 學父母는 子女에게 좋은 본을 보여 준다.

21) 濟州大學校 趙文富 教授提起 「家庭, 學校, 社會, 地域言論을 통한 社會教育」, 漢華日報 (1994. 6. 10. 10面)

22) 「濟州道教育廳 獎學資料」 (1994. 2.), 3面

- (3) 父母님들은 子女와 함께 外食을 하기전에 책방으로 가서 良書를 먼저 사준다.
- (4) 지나친 過剩보호를 지양하고 극기심을 기른다.
- (5) 항시 擔任敎師와 學父母간에 相談의 기회를 열어 놓는다.

### 3. 社會文化的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 社會的인 面

未來 指向的인 健全한 靑少年을 育成하기 위하여 1990年 부터 우리 濟州道敎育廳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 줌시다” 라는 指標로 “社會의 學校化運動”을 推進해 오고 있는데 이 運動은 이제 全國的으로 擴散되어 推進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 (1) 마을 스승협의회 運營의 活性化되고 있고,
- (2) 각종 社會團體와 學校間에 連繫性 推進이 잘되고 있고,
- (3) 敎育을 도와주는 學父母會가 敎育的으로 運營되고 있으며,
- (4) 學校의 弘報媒體를 통하여 어린이 선도를 繼續하고 있으며,
- (5) 學校의 여러가지 行事に 學父母들을 敎育的으로 참여 시키고 있다.<sup>23)</sup>

#### 2) 文化的인 面

人類文化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敎育의 힘에 의하여 싹이 트고 成長해 가는 것이며 문화에는 必히 傳統性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濟州道の 文化도 사람이 살기 始作하면서부터 싹이 터서 오늘에 까지 이어지는 동안 近來에 올수록 外來文化에 짓눌려 우리의 先人들로부터 所重하게 傳受해 온 道德性 높은 文化가 失蹤되어 가고 있고 이웃과 協力하며 살아오던 수누름 精神文化도 이제 사라져 버렸고, 消費를 節約하는 卽 精神文化도 稀釋되어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서 우리고장 濟州道에서 初等敎育의 힘으로 基礎敎育 부터 튼튼히 하기 위하 方案을 提示해 보기로 한다.

##### (1) 道德性 높은 敎育強化

앞에서도 道德性 敎育에 대하여 論述이 있었지만 道德性 敎育에 대한 論述은 再論을 하여도 無理함이 없을 것이므로 그 實踐方案을 記述해 보면,

道德性 敎育의 核은 孝에 있고, 孝는 百行의 根源이라 했듯이 孝를 못하는 사람은 忠도 할 수 없고, 老人恭敬이나 友愛도 할 수 없기 때문에 國民學校때 부터 孝行을 生活化하기 위해서,<sup>23)</sup>

23) 亂世의 哲人 孔子, 「新天地社」, (권두언에서 1992. 3. 10發行)

24) 濟州大學校 韓昌榮敎授著, 「濟州道敎考」, (韓一文化社, 1982. 9. 30. 272~273面 參照)

- ① 擔任教師 부터 孝行의 生活化가 되어야 하고,
- ② 어린이들에게 孝行日記를 쓰도록 하여 발표도 시킬 것이며,
- ③ 各 教室에는 孝行과 敬老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게시하여 감상하도록 하고,
- ④ 擔任教師는 孝行에 대한 美談事例를 자주 이야기 해 주고 孝行心이 뛰어난 兒童은 표창을 해줄 것이며,
- ⑤ 家庭에서도 父母들이 孝行을 본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릴때 부터 깊이 심어진 孝行心을 成長할 수록 계속이어져 나갈때 道德性은 必然코 회복 될 것이다.

### (2) 수누름 精神文化 傳承

수누름 精神은 곧 協力과 相扶相助의 精神을 말하며 우리 先人들의 삶의 바탕이기도 했는데 科學文明이 發達할 수록 사라져 가는 이 수누름 精神文化를 되살리기 위하여,

- ① 國民學校때부터 共同學習을 통한 意見收斂의 기회를 많이 주고,
- ② 자기가 갖고 있는 책도 서로 교환해 보고 또한 책이없는 벗들에게는 빌려 주도록 할 것이며,
- ③ 學習用具도 서로 빌려 쓰는 습성을 길러 주고,
- ④ 불우이웃 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할 것이며,
- ⑤ 친구들 사이에 음식도 나누어 먹는 습성을 길러 나갈 때 수누름 精神文化도 되살아 날것이다.

### (3) 조남 精神文化의 生活化

우리의 先人들로 부터 물려받은 遺産 가운데 가장 값진 遺産이 바로 이 조남 精神의 文化이며 이 조남 精神은 탐욕을 버리고 깨끗이 살며 미래 指向的인 高度의 道德性 높은 순결한 精神을 뜻하는 것이므로 不正한 行爲를 하지 않은 이 훌륭한 精神文化가 오늘날 物質文明에 짓눌려 사라져 가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 조남 精神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亦是 어릴때 부터 節約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습성을 길러주는 일이 매우 重要한 일이기에 其 指導事例와 方案을 技術해 보기로 한다.<sup>24)</sup>

- ① 어릴때부터 군것질을 아주 줄이고 용돈을 아껴쓰고 저축을 생활화 하도록 할 것이며 (筆者는 저축장려를 위해 1991년 2월 18일 졸업생 35명에게 저금 통장을 마련 해준 일도 있었음)
- ② 公共物을 아껴쓰고 자기 物件을 소중히 여겨 管理를 잘하도록 한다. (비가 갠 다음 우산관리 등)
- ③ 공책을 餘白이 없이 쓰도록 하고 學用品을 아껴 쓴다.
- ④ 쓰레기 生産을 줄이고 폐품을 再活用 하려는 習性을 기른다.
- ⑤ 農 漁村 어린이는 家事에 助力하면서 勤勉性을 習得케 한다.

(4) 홍보문화의 보급

오늘날 科學分明의 發達로 弘報의 媒體인 新聞과 放送을 우리國民들은 많이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弘報의 媒體들은 國益을 생각하고 國民의 情緒感을 외면 말아야 하는데 近間에 TV와 라디오에서는 파렴치범들의 소행과 靑少年들의 非行들을 조금도 濾過없이 아침부터 여러차례 放映과 放送을 하는일은 오히려 犯罪를 모방케 하여 犯罪를 助長시키는 소지가 될 수 있으며 感受性이 예민한 靑少年들의 善道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弘報 媒體의 편집인들은 깊은 思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안해서 요즘 國民情緒가 殺伐해진 이때 數週前에는 新聞紙上의 廣告欄과 道内の 벽보판에 男便을 죽이는 서른가지 方法이란 題目의 弘報物을 보았을 때 우리 道民들의 情緒感은 어떠한 것인가?

勿論 題目만 보고 실지로 그 연극을 안 보고서 其 演劇의 내용을 是非하는 것이 아니라 題目부터가 健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國益이 되지 않은 事件들은 일체 放送과 放映 그리고 新聞에 記事도 아니 한다는 弘報倫理를 우리도 본 받아야 할 것이다.<sup>25)</sup>

4. 敎員의 品格과 資質向上方案

敎育的인 環境을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分類해 보면 이는 自然環境과 人爲的環境과 人的環境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重要的 環境이 人的環境이라 할 수 있고 이 人的環境이란 敎職의 構成員으로서 敎員을 말한다.

敎員은 사람을 가르치는 職業이기에 敎員自身이 品格과 資質을 높여야 함은 勿論이며 敎員의 質은 被敎育者의 質을 가름하므로 優秀한 敎員이 確保되어야 하고 優秀한 敎員을 確保한 後에도 資質向上을 위한 계속적인 研修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優秀한 敎員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敎師로서의 潛在的 能力을 가진 高校生들을 敎師 候補者로 選拔하여 그들에게 質 높은 直前敎育을 시킴으로써 敎師로서의 훌륭한 資質을 具備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敎師를 養成하는 師範大學과 敎育大學의 敎授들 역시 資質과 品格이 높지 않고 人性에 問題가 있다면 師範敎育을 받는 敎師에게는 바로 問題가 생기게 되어 敎育의 將來는 위험을 招來하게 된다. 數年前에만해도 一部新進敎員들의 敎育 本然의 任務를 저 버리고 敎員勞組活動을 하면서 神聖한 敎職을 어지럽힌것도 本人들 自身의 人性 問題도 있었지만 敎師養成機關의 敎授들의 人性에도 全然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었을것인지도 모른다. 이나라의 百年大計가 正녕 敎育의 힘이라면 말로만 敎育을 百年大計라고 하지말고,

(1) 國家적으로 과감히 敎育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敎員을 精神的으로 또는 報酬的으로 優待를

25) 「男便을 죽이는 서른가지 方法」, 弘報物- 漢華日報 1994. 10. 8. 12面) 濟州文藝會館壁報板 (1994. 10. 7)



해 주어야 하고

(2) 師範教育을 마치면 任用考査를 치르지 않고 빨리 任用시켜주어야 하며,

(3) 敎師候補者로 選拔할 때 人性檢査를 바르게 하고 質 높은 學生을 뽑아 師範教育을 바르게 시키고 卒業을 시켰다면 任用考査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옳을 것이며,

(4) 現在 師範教育을 받고도 長期間 待機者로서 남아 있는 敎師候補者가 많이 있기 때문에 優秀한 學生들이 敎員候補를 기피하는 原因이 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必히 改善해 나갈 때 優秀한 敎員을 確保할 수가 있고 優秀한 敎員이 確保될 때만이 教育은 發展될 것이요 教育의 發展은 곧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sup>26)</sup>

## IV. 結 論

教育은 人類가 태어나면서 부터 始作이 되어 人類가 地球村에서 살아가는 동안 持續되는 것이며 21世紀를 내다보는 오늘날 科學文明이 極度로 發達한 것도 오로지 教育의 힘이라는데 그누구도 讓異를提起치 않을 것이다.

科學文明이 發達과 함께 道德性教育도 양쪽이 수레바퀴처럼 調和롭게 굴러가지 않고는 社會는 날로 혼탁해 질 것이므로 科學文明이 發達과 함께 道德性 높은 教育은 너무나도 切實하다고 보아진다.<sup>27)</sup>

우리 濟州道는 絕海高度였지만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始作한 以來 陸地로 부터 知識人들이 들어와 定着을 하고 修學도 하였기 때문에 濟州道의 後世들이 比較的 頭腦가 優秀하고 教育熱이 높아지는 것도 先人으로부터 물려받은 선비精神이 傳授된 것으로 보아지며 더욱이 道德性 높은 倫理觀은 어릴때부터 깊이 심어 주어야 함으로 初等教育의 役割과 責任은 莫重하다고 보아지면서 앞으로 우리 濟州道의 初等教育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地域의 特異性을 충분히 살리고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教育自治制 運營이 效率性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教育의 三位인 學校와 家庭, 社會가 一體가 되어 家庭에서는 學父母들로 하여금 우리 家庭이 바로 “훌륭한 學校이고 父母들 自身은 子女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社會적으로는 우리고장에서 자라고 있는 靑少年 모두가 “나의 子女와 다름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善導해 주어야 하며 學校에서는 敎직원들이 透徹한 使命感을 갖고 渾身の 情熱을 아낌없이 쏟을 때 基礎教育인 初等教育은 活性化되고 中等教育과 大學教育으로 連繫가 되어 教育은 必然코 발전 할 것이며 이처럼 教育이 發展 해 나갈때 우리고장 濟州道는 크게 발전 할 것이다

26) 韓國教育開發院. 「敎員資質向上 및 處遇改善方案 研究」, (1985. RR86-4 50面 參照)

27) 科學文明과 道德性 教育의 發達は 양쪽 수레바퀴 처럼 같이 굴러야 함을 強調.

## 참 고 문 헌

1. 박덕규, 임연기, 「敎員資質向上 및 處遇改善方案研究」, 研究報告 RR 86-14, 韓國敎育開發院, 1986.
2. 濟州道敎育史編纂委員會編, 「濟州敎育史」, 濟州道敎育委員會, 1979.
3. 濟州道敎育廳編, 「濟州敎育行政發展史」, 濟州道敎育廳, 1991.
4. 韓國敎育開發院編, 「進路敎育體制方案研究」, 研究報告 RR 87-27, 韓國敎育開發院, 1987.
5. 韓國敎員團體聯合會編, 「敎育自治制運營實態 및 改善方案」, 政策研究 第58輯, 韓國敎員團體校總聯合會敎育政策研究所, 1992.
6. 濟州道 敎育 委員會, 「濟州敎育 沿革誌」, 1978. 5